기다렸다, 프로야구… 오늘부터 시범경기

KIA 오후 1시 무등경기장서 삼성과 격돌

프로축구 내일 전남 드래곤즈 홈 개막전

주말 그라운드가 스포츠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지난주 2010 프로축구 K-리그 대장정이 시작된데 이어 6일부터는 프로야구가 시범경기를 갖고 기지개를 켠다.

한국시리즈 2연패에 도전하는 KIA 타이거즈는 6일 오후 1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시범경기를 갖고 전력 점검에 들어간다.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는 문학에서 격돌하고, 넥센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도 각각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로 시범경기 일정을 시작한다.

시범경기는 팀 간 2차전, 팀 당 14경기씩 총 56경기가 치러진다. 더블헤더는 실시하지 않으며 연장 10회와 11회에 한하여 승부치기가 진행된다. 11회까지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무승부가 된다. 시범경기 전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된다.

'조범현호 2기' 출범 후 첫 시즌을 앞둔 KIA는 시범경기를 통해 마운드를 완성할 계획이다. 시즌 초반 6선발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조 감독은 마운드 점검에 주력하면서 시즌 대비에 나선다.

7일에는 축구 대결이 스포츠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개막전 0-1의 석패를 기록한 전남 드래곤즈가 7일 오후 3시30분 광양으로 울산 현대를 불러들여 홈 개막전을 갖는다.

전남은 홈경기 개막전에 앞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경기장 외곽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를 연다. 지역민들이 참가하는 용광로 줄다리기, 광양전통음식 경연대회 및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 행사 등이 진행된다.

개막전 승리로 산뜻한 출발을 한 광주 상무는 인천을 찾아 2연승에 도전한다.

대구 FC와의 1라운드 경기에서 2골을 몰아넣은 최성국의 활약에 힘입어 2-1 승리를 거뒀던 상무는 7일 오후 3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최성국의 화력이 건재한 가운데, 3일 런던에서 열린 코드디부아르와의 평가전에서 중원을 책임졌던 국가대표 미드필더 김정우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어 상무의 움직임에 축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지성·이청용 주말 빅리그 출격

박주영 훈련 재개

〈박지성〉

〈이청용〉

아프리카 강호 코트디부아르와 친선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이끈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축 유럽파가 다시 리그 속으로 뛰어든다.

소속팀으로 복귀한 대표팀 주장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은 7일 오전 2시30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프턴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릴 2009-201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울버햄프턴과 원정경기 출격을 준비 중이다.

맨유는 현재 19승3무6패(승점 60)로 첼시(19승4무5패·승점 61)에 이어 2위를 달리며 선두 탈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박지성은 지난달 24일 웨스트햄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이어 1일 애스턴 빌라와 칼링컵 결승에서 잇따라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와 땅을 쳤지만, 제 몫을 해내면서 시즌 막바지 맨유의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한국 선수 중 역대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 기록을 새로 쓴 '블루 드래곤' 이청용(22·볼턴 원더러스)은 6일 자정 킥오프하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서 시즌 6호 골 및 두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에 도전한다.

코트디부아르와 경기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풀타임 활약을 펼치면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참가에 청신호를 켠 차두리(30·프라이부르크)는 6일 하노버96과 독일 분데스리가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

대표팀 주축 미드필더 기성용(21·셀틱)은 7일 폴커크와 스코틀랜드 원정경기에서 데뷔골을 노린다.

한편 허벅지 뒷근육을 다친 박주영(25·AS모나코)도 그라운드 복귀를 눈앞에 뒀다. 박주영은 부상 이후 세 경기 연속 결장하고 대표팀 합류마저 불발됐지만 현지시각으로 4일 오후 진행된 팀 훈련에 참가했다. /연합뉴스

국수전 결승 영암서 개최

이창호- 홍기표 대국

제53회 국수전 결승 1국이 '바둑황제' 조훈현 9단의 고향인 영암에서 6일 열린다.

이날 대국에서는 '돌부처' 이창호 9단과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인 프로기사 홍기표 4단이 겨루게 된다.

영암관광온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영암군이 현재 추진 중인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비롯해 산수 뮤지컬의 수상공연장 홍보를 위해 유치됐다.

바둑테마파크는 영암읍 개신리 261-1번지 일원에 600억원을 투입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바둑문화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국내 및 세계바둑의 성지로 발돋움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월출산 국립공원과 왕인박사 유적지 등 영암군 명소화 사업과 병행하여 천해의 관광명소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유니폼 빌려 입고… 일몰로 경기 중단

북한축구팀 원정 평가전 '망신'

베네수엘라와 1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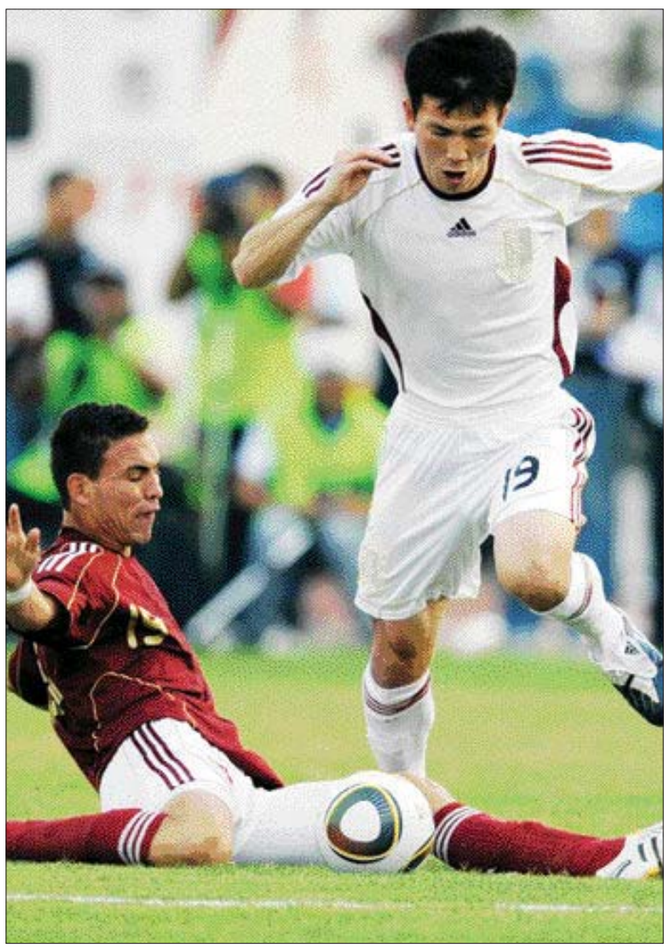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북한축구대표팀이 상대 선수 유니폼을 빌려 입고 80분짜리 평가전을 치르는 촌극을 벌였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본선에 진출한 북한은 5일(이하 한국시간) 베네수엘라 산 펠리페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대표팀과 친선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전반 7분 박남철의 선제골로 앞섰지만, 전반 43분 양헬로 페냐에게 동점골을 내줘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날 경기는 대표팀 간 대결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민망한 장면이 이어졌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경기가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늦게 킥오프됐다. 북한 대표팀이 36도까지 오른 기온 때문에 킥오프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경기 시간 변경을 요청한 또 한가지 이유는 유니폼 때문이다.

북한 선수단은 비행기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유니폼을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북한 선수들은 결국 베네수엘라 대표팀 유니폼을 빌려 입고 그라운드에 섰다. 출발부터 어긋난 이날 경기는 일몰로 90분도 다 못 채우고 경기 시작 80분 만인 후반 35분 끝났다. /연합뉴스


북한 축구대표팀의 안철혁(오른쪽)이 5일 베네수엘라 산 펠리페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상대 수비수를 뚫고 공을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주먹' 타이슨 5년만에 링 복귀

'링의 악동' 마이크 타이슨(44)이 5년 만에 링에 복귀한다.

복싱 전문 사이트 링사이드리포트는 5일(한국시간) 프로모터 돈 킹이 타이슨을 올해 후반께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킹은 타이슨과 에반더 홀리필드와 재대결을 계획했지만 타이슨은 이 대결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킹은 홀리필드를 포함해 데릭 로시 등 복귀전 상대로 여러 복서를 물색하고 있다고 이 사이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촉

▲정해균(전 여수시 부시장)·손명순씨 장남 은호(서울적십자병원 내과 전공의)군 장호연(서울 태능성심병원장)·황경진(서울 그레이스 병원장)씨 장녀 윤선양=6일(토) 오후 3시 웨딩의 전당(금호생명빌딩) 3층(노블레스홀)

▲한영섭·임귀례씨 아들 창민(광주은행)군 최창식(클럽900 경기부장)·신혜숙씨 딸 항(광주은행)양=6일(토) 오후 2시20분 상무리츠컨벤션웨딩홀 2층(데이지홀)

부음

▲김재업씨 별세 성진(영암마트)·성민·미진씨 부친상=발인 6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황봉우씨 별세 운용·옥익·수덕·수임·수정씨 부친상=발인 6일(토)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